

尹東里의 家系와 『草窓訣』 中 「運氣衍論」에 關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尹暢烈 *

A Study on Family line of Yoondongri(尹東里) and *Ungiyeonron*(運氣衍論) in *Chochangkyeul*(草窓訣)

Yun Chang-Yeol *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Objectives : Yoondongri is a famous Korean medical doctor in the 18th century. He wrote *Chochangkyeul*, a special medical book which records his treatment based on the theory of Ungi. Nevertheless, his life and his book have not received due research it deserves.

Methods : The paper studied the family tree as revealed in the Papyeong Yoon clan and *Chochangkyeul*. Further study was done on Yoon's medical theories and clinical features as discovered in *Chochangkyeul* and *Ungiyeonron*.

Results & Conclusions : Very little is known about Yoondongri other than that he is the 27th generation from the progenitor of the Yoon clan of Papyeong Yoon clan, and that he is the great grandchild of Choongheon-gong Yoon Jeon.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his Ungi theory is Owoon Habgi, which illustrates the integration of Gabsin, Muui, Byeonggye, Gyungjeong, and Yimgi, thereby forming one Ilki. Ilki signifies that mechanisms of disease are inter-connected and one in essence. As the core of his clinical practice, he explains the 25 different types of diseases that can afflict those who are born in the years Gabsin, Muui, Byeonggye, Gyungjeong, and Yimgi when they are met with their corresponding year. Yoon described for each script the mechanism of disease, symptom, treatment, and prescription, all of which showcases his status as a great clinical practitioner. His application of Ungi theory is uncomplicated and accessible. His method was also highly effective, the likes of which were unseen even in China and Japan. His prescriptions are mainly based on the Ungi treatment found in Jinmutaek's *Saminang*, and on *Donguibogam*.

Key Words : Yoondongri, Yoonchochang, *Chochangkyeul*, *Ungiyeonron*, Ungi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 042-280-2601 E-mail : yooncy@dju.co.kr

1. 序 論

『草窓訣』은 朝鮮의 英祖, 正祖 때의 儒醫 尹東里的 저서이다. 이 책은 魯城尹氏 집안에 전해오던 것이 筆寫되어 후세에 퍼지게 되었는데 轉寫하는 과정 속에서 순서도 바뀌고 내용도 추가되었으며 書名도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살펴보다더라도 『草窓訣』로 전해지는 판본이 韓獨醫學博物館 所藏本,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韓國韓醫學研究院 所藏本,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本 그리고 筆者가 본 논문의 底本으로 활용한 1980년에 靑丘韓醫學研究會에서 刊行한 刊行本이 있다.

이외에 『草堂遺訣』로 전해지는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이 있고 『艸函三理』와 『運氣衍論』으로 각각 題名된 韓獨醫學博物館의 2종류 所藏本이 있고, 『運氣衍論』과 『五運六氣篇』으로 이름이 붙은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의 2종류의 판본도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 韓獨醫學博物館에는 『運氣誌』라는 이름으로 된 판본도 있으며¹⁾ 日本의 三木榮氏도 한 종류의 판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기타의 명칭으로는 『三里訣』, 『圓機活法』 등도 있다.

『草窓訣』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운기전문서이며 이론과 임상을 결합한 임상서이다. 이 책은 운기 이론과 운기처방의 응용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에 있는 다양한 처방을 마치 『동의수세보원』에서 四象體質에 따라 처방을 배열하였듯이 그만의 독특한 이론에 따라 甲辛, 戊乙, 丙癸, 庚丁, 壬己 아래 배열하여 응용하고 있으며 「用藥勸」의 雜錄에서는 특정 처방이나 약물을 誤用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병리기전 치료법을 상세히 기술하여 뛰어난 임상가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이 책이 거의 유일하리라 생각되며 임상으로써 尹東里的의 위상을 재평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 사료된다. 이 책에 관한 연구로는 金準泰의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에 關한 研究』

및 尹愷의 『草堂遺訣의 校勘 및 書誌學的 研究』가 있다. 김준태는 이 분야의 최초의 연구로서 가치 있는 연구를 하였고 尹愷은 8종의 판본을 대조하여 원문을 교감하여 이후 연구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운기이론과 이를 임상에 응용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생애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草窓訣이란 책이 세상에 전해오고 있지만 이 책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된 것은 너무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筆者는 『초창결』과 그의 운기이론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尹東里的의 家系와 生涯를 먼저 살펴보고 1980년 漢城出版社에서 간행한 『草窓訣』을 底本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草窓訣』은 크게 「運氣衍論」과 「用藥勸」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먼저 「運氣衍論」의 내용만을 연구 분석하였다³⁾.

2. 尹東里(草窓)의 家系 및 生涯

尹東리는 파평윤씨 시조 莘達의 27世孫이다. 莘達의 15世 坤이 1400年 庚辰年 제2차 왕자의 난 때 李芳遠을 도와 亂을 평정하는데 참여하여 佐命功臣에 추대되었고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昭靖公의 시호를 받았다. 이후 16世 希齊, 17世 培, 18世 師殷, 19世 倬, 20世 先智, 21世가 暉이다. 暉의 후손들이 論山의 魯城에 세거한 이후 그들을 특별히 魯城尹氏라 부르며 學者집안으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22世 昌世를 지나 23世 焯에 이른다. 昌世는 5子를 두었으니 제2자가 八松 尹焯으로 文正公의 시호를 받았으며 少論의 거두 拯은 尹焯의 손자이다. 제3자가 焯으로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다 1637년 강화도가 淸軍에 함락될 때 殉節하였고 忠憲公의 시호를 받았으며 강화도의 忠烈祠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焯의 3자가 24世 叔學이고 25世 撤을 거쳐 26世 頤教(1680~1745)에 이르니 尹東里의 父가 된다. 頤教의 자는 養而, 學問과 德行이 있었으며 號를 讀易齋라 했다. 그의 동생으로 身教와 雨教(1695~1737)

3) 윤초창 저. 박인상 편저. 草窓訣. 서울. 漢城出版社. 1980.

Received(14 July 2017), Revised(10 August 2017),

Accepted(17 August 2017)

1) 윤서현. 『草堂遺訣』의 校勘 및 書誌學的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2014. p.2.

2) 金準泰.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에 關한 研究. 대전대학교 대학원. 1993. p.6.

가 있다. 雨敎는 字가 時甫이고 號가 農村으로 그의 부인 熙川 金氏의 墓가 全州의 農村에 있다고 했으니 여기서 號를 딴 듯하다. 『草窓訣』의 用藥勸序를 보면 “季父 農村先生은 돌아가신 아버지(이 서문은 1746년에 쓰여 졌고, 父 頤敎는 1745년에卒했다) 讀易齋先生에게 공부를 배웠고 나는 農村先生에게서 受業했으니 우리 집안의 의학이 三世를 지나왔다”라고 하였으니 家門 대대로 儒學을 공부하다가 醫業의 시작은 父 頤敎로부터 시작된 듯하다. 頤敎는 東里, 東塾의 2男과 2女를 두었는데 東里는 맏아들이다.

尹東里的 字는 子美이고 號는 草窓이다. 肅宗 乙酉年(1705) 正月 26일에 태어나 正祖 甲辰年(1784) 11月 10일까지 향년 80세를 살았다. 室은 昌寧曹氏이고 墓는 合葬墓로 定山 場面 文幕洞에 있다고 한다. 東里는 2男 2女를 두었는데 맏아들이 光先이고 둘째아들이 光前이다⁴⁾.

윤동리의 가문은 과거 다르지만 文正公 尹焄, 尹拯 같은 학자들이 있고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 忠憲公 焄이 강화도에서 청군과 싸우다 殉節한 忠義의 집안이며 할아버지 撤이 尹拯과 6寸間임으로 어려서부터 儒學을 깊이 공부했으리라 추측된다. 그의 생애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고 「運氣衍論」의 跋文에서 淡窩가 그를 正士라고 칭한 것만 보아도 그의 인품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의 號 草窓은 近思錄에 있는 다음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⁵⁾.

‘明道先生曰 周茂叔이 窓前草不除去어시늘 問之 한테 云與自家意思一般이라 하시니라(명도선생이 말씀하셨다. 주부숙(주염계)이 창 앞에 있는 풀을 제거하지 않으시므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말씀하시기를 “나 자신의 의사(仁心)와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위의 뜻은 天地의 仁이 萬物을 발육시키는데 자신의 생각도 仁으로 가득 차서 창 앞의 풀의 生意와

합치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草窓이라는 自號속에는 자신의 생각을 仁으로 충만한 天地之心과 一致시키려는 의지가 숨어 있으며 醫師로써 仁術을 베풀어 고통 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염원도 들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의 儒醫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明나라 때 太醫院에서 御醫를 역임했던 儒醫 劉溥의 號도 草窓인데 이와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안타까운 것은 윤동리가 80세를 살았지만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3. 運氣衍論의 內容 分析

1) 序文의 內容 분석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원문을 번역하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大凡 人之生於甲者가 亦病於甲하고 病於乙者가 其生也亦乙은 則不須巧思니 宜用當年之劑라 辛生이 病於甲하고 乙人이 患在戌는 則亦宜擇兩年之劑하야 符驗症樣而煎之라 如此者類는 雖蓬心盲知라도 可以容易說矣라 及至甲生이 病於乙於戌와 與夫乙生이 患于甲于辛之屬은 必須運活法於方寸이라야 乃可以理推之矣라 何則고 或從生年하며 或從病紀하니 生年病紀를 圓機而會之라 如甲辛水涸하야 不能制火則病於乙戌而火盛金衰者하며 暨夫乙戌金虧하야 不能生水하야 則病于甲辛하야 水被土克者라 嗚呼怪矣라 雖云甲生이나 而其生也가 正月二月이면 則病多崇於癸하니 多字有意하니 此傷在胎時也라 雖曰乙生이나 而其晚也 十二月이면 則病或由於丙하니 或字有意니 此傷在產後也라 是誠軒岐之心法이오 華扁之正統이로대 而不能形諸言 筆諸書者也라 奈何俗醫는 不知運氣가 爲甚件物事하고 徒以症形藥方而葫蘆之오 衆口嘩之 曰晬日之兒가 豈有心火之理며 三尺之孩가 安病腎虛之道乎아하야 至死而不知悔하고 病家도 亦不以爲咎하니 其爲醫門之痼弊니 可勝嘆哉로다 一紀之內에도 天運地氣가 每每不均하야 或旱或雨하며 過風過寒則人之一身은 稟天地之至靈者니 豈無虛實之應於臟腑之內리오 而雖半午之寒感和 毛孔之小腫이라도 何者 有外於

4) 坡平尹氏魯宗派譜刊行委員會. 坡平尹氏魯宗派譜(天). 大田. 農經出版社. 1983.

5) 成百曉譯註. 譯註近思錄集解(3).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4. p.326.

運氣之理乎아 吾所以詳論甲乙二紀之理者는 將欲使後學으로 細於十干之病이니 當如斯然後에 可推故也라 後之有志於醫者는 當勿弁髦하고 能自常目則可謂地下無冤鬼하며 世間足健人矣리라 其蔭功積善이 不下於造七寺矣라 歲崇禎 再乙巳 七月 上澣에 草窓道人 尹東里는 序하다.

대체로 사람이 甲년에 태어난 사람이 또한 甲년에 병이 들고 乙년에 병이 든 사람이 그 生年이 또한 乙年인 것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해당년의 약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辛年生이 甲년에 병이 들고 乙年生이 戊년에 병이 드는 것은 또한 마땅히 두 해의 약제를 선택해서 증의 양상을 징험하여 약을 쓸 것이다. 이와 같은 類는 비록 식견이 짧고 무지한 사람일지라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甲年生이 乙年 戊년에 병이 드는 것과 乙年生이 甲年, 辛년에 병이 드는 등속은 반드시 마음속에서 유통성 있게 운용해야만 이치를 추리 할 수 있다. 왜 그러한가. 혹 태어난 生年을 따르고 혹 병이 드는 해를 따르니 태어난 해와 병이 드는 해는 유통성 있게 회통해야 한다. 예를 들어 甲年 辛年生이 물이 말라 火를 제압하지 못하여 乙年, 戊년에 병이 들어 火盛金衰한 경우가 있고, 乙年 戊年生이 흙이 휴손되어 水를 생하지 못하여 甲年, 辛년에 병이 들어 水가 土의 克을 당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아! 괴이하다. 비록 甲年生이라 하더라도 生月이 정월, 이월이면 병이 많이(多) 癸년에 생기니 여기서 多라는 글자가 의미가 있으니 이는 뱃속에 있을 때 손상된 것이다. 비록 乙年生이나 태어난 달이 12월이면 병이 혹(或) 丙년에 생기니 여기서는 或이라는 글자가 의미가 있으니 이것은 태어난 뒤에 손상된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황제와 기백의 心法이요 화타와 편작의 正統이로되 말로 드러내고 글로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어찌하여 俗醫들은 운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한갓 증상과 처방으로만 대충 치료하려고 하는가. 여러 사람들이 함부로 지껄여서 이르기를 “한 돌 된 아이가 어찌 心火의 이치가 있으며 三尺의 아이가 어찌 腎虛해서 병드는 이치가 있으리오”하여 죽음에 이르러도 후회할 줄 모르고 환자도 또한 그를 허물

하지 않으니 醫門의 고질적인 폐단이니 정말로 통탄스럽다. 一年안에서도 하늘의 오운과 땅의 육기가 매양 고르지 아니하여 혹 가물기도 하고 혹 비가 오며 지나치게 바람이 불거나 추기도 하다. 사람의 한 몸은 천지의 지극히 신령스러운 것을 품부 받았으니 어찌 허실이 장부 속에 응함이 없으리오. 비록 正午에 한사에 감촉되고 털구멍의 작은 중기라도 어느 것이 운기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오. 내가 甲乙 2년의 이치를 상세하게 논하는 이유는 후학들로 하여금 十干이 일으키는 병을 자세히 알게 하고자 함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한 연후야라 추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뒤에 의학에 뜻을 둔 자는 마땅히 무용지물(弁은 緇布冠으로 관례를 행하기 전에 잠시 쓰는 관.髦는 총각의 더펄머리. 관례가 끝나면 모두 소용없게 됨으로 無用之物의 비유로 씀)이라 여기지 말고 스스로 항상 눈을 붙여 연구하면 땅속에 원통하게 죽은 귀신이 없으며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많게 될 것이다. 음덕과 적선이 7개의 절을 짓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문을 쓴 해는 1644년 명나라가 망한 후 두 번째 맞이하는 乙巳年 즉 1725년 7월 상순에 초창도인 윤동리는 서문을 쓰다.

위의 서문은 윤동리가 21세 때 쓴 글이다. 21세 때 벌써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운기이론을 확립하고 이를 활용하였다고 하니 그의 천재성을 또한 잘 알 수가 있다.

위의 내용을 몇 가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生年과 週年의 질병 발생의 상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甲年生人은 甲土가 태과한 체질을 타고 났으니 甲土가 太過하면 土克水함으로 이 사람의 체질은 脾土盛而腎水衰하고 다시 甲年을 맞이하면 이러한 체질적인 특징이 더욱 발현하게 됨으로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乙年生人, 丙年生人 등이 乙年과 丙년에 병이 생기는 것 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또 辛年生人이 甲년에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는 辛은 水不及의 해이므로 자신이 허약하여 土克水를 당하게 됨으로 辛年生人도 水衰而土盛

(腎水衰而脾土盛)한 체질을 타고 남으로 또한 甲年에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윤통리는 甲辛相通이라 하여 甲年, 辛年生人이 甲年, 辛年을 만나면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뒤의 三紀相通條와 生年週年의 疾病 발생의 상관성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므로 戊乙相通에 대한 내용은 생략한다.

둘째 甲年 辛年生人이 乙戊年을 만나면 병이 들고 乙年 戊年生人이 甲辛年에 병이 드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甲年 辛年生人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土盛水衰하여 水克火를 못하여 火가 盛하게 되고 火盛하면 火克金을 하여 金衰하게 되고 戊年은 火太過하니 역시 火克金을 하게 된다. 이렇게 金이 衰하게 되면 다시 金生水를 하지 못하여 역시 水衰火盛함이 반복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태어난 해와 만나 해를 가지고 일차원적으로 병리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심도 있게 병리 기전을 분석한 것이다.

셋째 그는 또 경험에 의거하여 生月이 正月 二月인 자는 전해년도 天干의 영향을 많이(多) 받으니 胎兒로써 뱃속에 있을 때 손상된 것이라 하였고 태어난 달이 12월이면 혹(或) 다음 해의 天干에 영향을 받아 병이 생기니 이것은 태어난 뒤에 손상된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그의 경험에 의하여 우려난 내용으로 기운이 교차하는 경계에 있을 때 우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넷째 윤통리는 운기의 절대성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고 있다. 그는 위에서 “한 돌 된 아이가 어찌 心火의 이치가 있으며 三尺의 아이가 어찌 腎虛해서 병드는 이치가 있으리오’하여 죽음에 이르러도 후회할 줄 모르고 환자도 또한 그를 허물하지 않으니 醫門의 고질적인 폐단이니 정말로 통탄스럽도다.”라고 하였다. 이는 운기를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한 내용으로 운기는 태어나는 때부터 체질적으로 확정되어 불변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작은 증상 하나라도 운기의 이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서문에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운기는 한의학의 핵심 내용

(軒岐之心法, 華扁之正統)으로 의사는 반드시 운기의 이치를 알고서 치료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五運合紀의 내용 분석

이곳의 내용은 윤통리의 독창적인 주장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오운합기란 甲辛과 戊乙과 丙癸와 庚丁과 壬己가 합하여 一紀가 됨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一紀가 된다는 것은 2개의 天干이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 병리적으로 동일하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甲辛合紀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己化土하고 甲은 陽干이라 土太過가 된다. 甲年은 土太過年으로 자신이 實하여 水를 克하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脾土가 왕성하고 腎水가 쇠약하게 된다. 그리고 丙辛化水하고 辛은 陰干이라 水不及이 된다. 辛年은 水不及年으로 자신이 虛하여 도리어 土克水를 당하기 때문에 水가 쇠약해지고 土가 왕성해진다. 따라서 甲辛의 두 해는 모두 土盛水衰(脾盛腎衰)한 병리현상이 나타남으로 합하여 一紀가 된다.

戊乙合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戊癸化火하고 戊는 陽干이라 火太過가 된다. 戊年은 火太過年으로 자신이 實하여 金을 克하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心火가 왕성하고 肺金이 쇠약하게 된다. 그리고 乙庚化金하고 乙은 陰干이라 金不及이 된다. 乙年은 金不及年으로 자신이 虛하여 도리어 火克金을 당하기 때문에 金이 쇠약해지고 火가 왕성해진다. 따라서 戊乙의 두 해는 모두 火盛金衰(心盛肺衰)한 병리 현상이 나타남으로 합하여 一紀가 된다.

丙癸合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丙辛化水하고 丙은 陽干이라 水太過가 된다. 丙年은 水太過年으로 자신이 實하여 火를 克하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腎水가 왕성하고 心火가 쇠약하게 된다. 그리고 戊癸化火하고 癸는 陰干이라 火不及이 된다. 癸年은 火不及年으로 자신이 虛하여 도리어 水克火를 당하기 때문에 火가 쇠약해지고 水가 왕성해진다. 따라서 丙癸의 두해는 모두 水盛火衰(腎盛心衰)한 병리현상이

나타남으로 습하여 一紀가 된다.

庚丁合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乙庚化金하고 庚은 陽干이라 金太過가 된다. 庚年은 金太過年으로 자신이 實하여 木을 克하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肺金이 왕성하고 肝木이 쇠약하게 된다. 그리고 丁壬化木하고 丁은 陰干이라 木不及이 된다. 丁年은 木不及年으로 자신이 虛하여 도리어 金克木을 당하기 때문에 木이 쇠약해지고 金이 왕성해진다. 따라서 庚丁의 두해는 모두 金盛木衰(肺盛肝衰)한 병리현상이 나타남으로 습하여 一紀가 된다.

壬己合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丁壬化木하고 壬은 陽干이라 木太過가 된다. 壬年은 木太過年으로 자신이 實하여 土를 克하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肝木이 왕성하고 脾土가 쇠약하게 된다. 그리고 甲己化土하고 己는 陰干이라 土不及이 된다. 己年은 土不及年으로 자신이 虛하여 도리어 木克土를 당하기 때문에 土가 쇠약해지고 木이 왕성해진다. 따라서 壬己의 두해는 모두 木盛土衰(肝盛脾衰)한 병리현상이 나타남으로 습하여 一紀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甲己化土, 乙庚化金,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化火하고 甲丙戊庚壬의 陽干은 자신이 實하여 我克者를 克하고 乙丁己辛癸의 陰干은 자신이 虛하여 克我者에 의하여 克을 당하게 되며 이러한 원리에 의해 甲辛合紀, 戊乙合紀, 丙癸合紀, 庚丁合紀, 壬己合紀의 五運合紀의 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3) 六氣司天의 해와 天干年의 相關關係

윤동리는 『초창결』의 五運合紀條에서

子午少陰君火의 해는 乙年과 동일하고
卯酉陽明燥金의 해는 戊年과 동일하고
辰戌太陽寒水の 해는 壬己年과 동일하고
丑未太陰濕土의 해는 甲辛年과 동일하고
寅申少陽相火의 해는 丙癸年과 동일하고
巳亥厥陰風木의 해는 庚丁年과 동일하다는 육기와 五運合紀의 상관성을 밝힌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초창결』의 「운기연론」의 五運合紀, 六氣相通皆腑病, 六氣論에 보이고 「用藥勸」의 五運五臟, 六氣十二支藥 등에 보이는데 五運合紀條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의 내용에서 辰戌太陽寒水는 甲辛年과 동일하 하였고 丑未太陰濕土는 壬己年과 동일하 하였다. 이를 보면 五運合紀條의 辰戌太陽寒水の 壬己年同은 甲辛年同이 옳고 丑未太陰濕土의 甲辛年同은 壬己年同의 오류로 보인다.

六氣司天과 天干年의 질병의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초창결』에 보이지 않아 이해가 쉽지 않으나 이를 필자의 생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子午少陰君火가 司天하는 해는 火가 왕성하여 火克金하고 乙年은 金이 不及하여 火克金을 당함으로 병리가 같다고 본다.

卯酉陽明燥金이 司天했을 때 戊年과 同一하다는 것은 윤동리의 독특한 이론을 도입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는 六年三紀相通條에서 “오장이 克을 당하면 쇠약해지나 오직 火臟인 心臟은 克을 당하면 더욱 치성하게 타오른다(諸臟이 遇克輒衰나 惟火臟은 遇克益熾라).”고 하였다. 여기서 主體가 되는 것은 六氣司天이다. 卯酉陽明燥金이 司天하면 金이 왕성하고 金이 왕성하면 金侮火를 하게 된다. 戊年은 火太過年으로 본래 心火가 왕성한 해이고 조금 이 사천하여 金侮火를 당해도 치성하게 타오르게 되어 同戊年이라 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六年三紀相通條에 있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보면 양명조금이 司天하면 金旺하여 肺熱하게 되고 戊年은 火旺金衰하나 肺金이 火熱의 克을 받아 더욱 타오르기 때문에 둘의 병리가 서로 상통하게 된다고 사료된다.

辰戌太陽寒水가 司天하는 해는 甲辛年과 同一하다고 하였다. 이것도 위의 “諸臟이 遇克輒衰나 惟火臟은 遇克益熾.” 한다는 이론을 도입해야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甲年은 土盛克水하여 腎水가 쇠약하게 되어 水克火를 못하여 火盛하게 되고 辛年은 水衰하여 역시 水克火를 못하여 火盛하게 된다. 태

양한수가 司天하여 水氣가 왕성하여 水克火를 하면 火는 克을 당하여 쇠약해지지 않고 더욱 타올라 병리가 相通한다고 사료된다.

丑未太陰濕土가 司天하는 해는 壬己年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이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壬年은 木太過年이니 木克土하여 木旺土衰하고 己年은 土不及年임으로 木克土를 당하여 역시 木旺土衰하게 된다. 이러한 해에 윤동리는 六年三紀相通條에서 土中濕痰이 用事하게 된다고 하였고 태음습토가 司天하는 해에도 水濕의 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역시 濕痰이 盛할 수가 있으니 양자의 병리가 상통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것을 통해 보더라도 윤동리는 기계적으로 병리를 해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임상경험을 통해 병리를 해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寅申少陽相火가 司天하는 해는 丙癸年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소양상화가 司天하면 相火가 치성하게 되고 丙水가 克火하고 癸火가 不及하여 水克火를 당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火의 장기는 克을 당하면 더욱 타오르기 때문에 병리가 동일하다고 본 듯하다.

巳亥厥陰風木이 司天하는 해가 庚丁年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권음풍목이 사천하면 목기가 창궐하게 된다. 庚年은 金旺克木하고 丁年은 木衰하여 金克木을 당하지만 八年四紀各通條에서 金克木을 당하면 風木이 反動(庚丁은 金克木이로대 而風木反動이라) 한다는 윤동리만의 독특한 이론으로서 설명해야 이해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4) 六年三紀相通과 八年四紀各通의 내용 분석

이 곳에서는 먼저 乙戊, 丙癸, 庚丁의 6년 그리고 甲辛, 壬己, 丙癸의 6년이 병리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乙戊, 丙癸, 庚丁의 병리가 서로 상통하는 이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乙戊年은 본래 火旺金衰한 해이다. 乙金이 쇠약해지면 火의 克을 당하게 되고 戊火가 亢盛하면 火克金을 하게 되니 乙戊의 병리기전은 동일하니 肺가 熱을 받아 焦하게 된다.

다음 丙癸의 병리를 살펴보면 丙水가 왕성하면 火를 克한다. 모든 臟이 克을 받으면 쇠약해지나 오직 火臟은 克을 받으면 더욱 타오르기 때문에 火熱하면 心, 小腸의 사이를 꼭 채우게 되니 寒藥으로 滲泄시켜야 한다. 癸火衰하면 水盛하여 水克火를 하여 心火가 타오르게 되어 丙과 마찬가지로 肺를 焦하게 태우므로 乙戊 丙癸의 四年의 병리가 相通하게 된다. 이곳에서 말한 火의 장기가 水의 克을 당하면 더욱 타오른다는 이론은 윤동리만의 독특한 이론이라고 사료된다.

庚丁의 해는 庚이 金太過라 金克木을 하고 丁이 木不及이라 金克木을 당하여 모두 金旺木衰한다. 그런데 金盛하면 도리어 肺熱하게 되어 庚丁의 해가 乙戊 丙癸와 同一하게 肺熱病을 일으킴으로 이 6년의 三紀는 상통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乙戊 丙癸의 4년에 태어난 사람이 乙戊 丙癸年을 만나면 病이 생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요약해 보면 乙戊, 丙癸, 庚丁의 6년은 上焦에 火熱이 성한 병이 생겨 병리기전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이 여섯 해에 태어난 사람이 이 6년을 만나면 上焦에 火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甲辛, 壬己, 丙癸의 三紀相通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辛年은 土旺水衰하여 濕化가 流行한다. 壬己年은 木盛土衰하여 土中の 濕痰이 用事한다. 丙癸의 해에는 水旺火衰하여 寒水流行하여 脾土가 스스로 무너져 甲辛 壬己年의 虛冷과 같아진다. 따라서 서로 만나면 病이 생기니 甲辛生이 壬己年을 만나고 壬己生이 甲辛年을 만나면 脾腎의 濕痰이 邪가 되고 甲辛生 壬己生이 丙癸年을 만나면 腎經의 邪水가 脾를 침범하여 浮脹癉冷 등 병이 생긴다. 丙年生이 癸年을 만나고 癸年生이 丙年을 만나면 더욱 흔히 水氣가 乘脾하는 증상이 생기는데 心火가 微弱한 자는 定志丸을 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甲辛年은 土旺하여 水濕이 停滯하게 되고 壬己年은 土衰하여 水濕을 運化하지 못하여 濕痰이 發生하게 된다. 丙癸年은 水旺火衰하니 水旺하면 水侮土하고 火衰하면 火生土를 못하여 脾土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虛冷하게 되고 虛冷하게 되면 水濕이 停滯하게 되어 甲辛, 壬己, 丙癸年의 병리가 相通하게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甲辛, 乙戊, 庚丁, 壬己 8년의 各通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辛年은 水涸火盛하고 乙戊年은 火旺하니 甲辛과 乙戊는 모두 火가 왕성하다. 또 戊에 속하는 胃中에는 火가 저장되어 있고 脾와 胃는 陰陽相合하는 경맥임으로 甲辛이 乙戊, 丙癸, 庚丁과 관련이 없지만 진실로 相通하는 이치는 있다. 庚丁은 金克木 하지만 風木이 반대로 木을 받아 動하고 壬己는 木이 왕성하여 風이 크게 작용하니 병이 모두 肝經에서 發生한다. 또 壬己年에 木이 太過하면 木生火의 뜻이 있고 膽에는 相火가 있고 肝膽은 음양이 상합하는 경맥임으로 乙戊가 甲辛, 壬己, 庚丁과 관련이 없지만 진실로 相通하는 이치가 있다. 여기서 운동되는 甲辛, 乙戊, 庚丁, 壬己의 8년의 해는 火熱이 盛할 수 있는 이치가 있어 相通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의 임상 경험 속에서 발견한 내용이라 사료되며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生年과 遇年の 질병 발생의 相關性

여기서 生年이란 태어난 해의 天干을 말하고 遇年은 살아가면서 만난 當該年을 말한다. 이곳에는 (1)甲辛生人 遇甲辛年病부터 …… (25)庚丁生人 遇壬己年病까지 25개의 조문으로 세분되어 있다. 그 순서는 첫째 甲辛生, 乙戊生, 丙癸生, 庚丁生, 壬己生人이 甲辛年을 만났을 때 생기는 병 5조문, 둘째 乙戊生, 甲辛生, 丙癸生, 庚丁生, 壬己生人이 乙戊年을 만났을 때 생기는 병 5조문, 셋째 丙癸生, 甲辛生, 乙戊生, 庚丁生, 壬己生人이 丙癸年을 만났을 때 생기는 병 5조문, 넷째 庚丁生, 甲辛生, 乙戊生, 丙

癸生, 壬己生人이 庚丁年을 만났을 때 생기는 병 5조문, 다섯째 壬己生, 甲辛生, 乙戊生, 丙癸生, 庚丁生人이 壬己年을 만났을 때 생기는 병 5조문의 25조문을 차례대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1)甲辛生人 遇甲辛年病 (6)乙戊生人 遇乙戊年病, (11)丙癸生人 遇丙癸年病, (16)庚丁生人 遇庚丁年病, (21)壬己生人 遇壬己年病을 제외한 나머지 20조문은 예를 들어 (2)乙戊生人 遇甲辛年病과 (7)甲辛生人 遇乙戊年病은 병리기전이 相同함으로 20조문을 10조문으로 계산하면 실제적인 조문은 15조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각 조문마다 내용의 서술은 一紀(甲辛, 乙戊, 丙癸, 庚丁, 壬己)의 生人이 특정 一紀를 만났을 때의 병리기전과 증상을 설명하고 이어서 치법과 처방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운기이론에 입각하여 임상을 한 대방가의 풍부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25개의 조문 중 2번째에 있는 乙戊生人이 甲辛年을 만났을 때의 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乙戊년에 태어난 사람이 甲辛년이 되었을 때 병드는 것과 甲辛년에 태어난 사람이 乙戊년이 되었을 때 병드는 것을 보면 이 乙戊와 甲辛년에 태어난 사람은 본래 心火가 있어 肺에 전달된다. 따라서 甲辛年 물이 마르는 해를 만나면 水가 火를 克하지 못해 火가 더욱 盛해진다. 甲辛과 乙戊년에 태어난 사람은 본래 水가 火를 克하지 못하기 때문에 乙戊年의 火가 왕성한 해를 만나면 火克金을 해서 金이 水를 生하지 못하니 이것이 세속에서 말하는 陰虛火動이다. 그러나 火가 動해서 陰虛하게 된 자가 있고, 陰이 虛해서 火가 動한 자가 있으니 이것이 내가 앞서 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發見한 것이다.

火가 動해서 陰虛하게 된 자는 乙戊년에 태어난 사람이 甲辛年을 만난 것이고, 陰이 虛해서 火動하게 된 자는 甲辛년에 태어난 사람이 乙戊年을 만나 는 것이다.

火가 먼저 動한 사람은 먼저 火를 내린 뒤에 補陰하니 먼저 黃連茯苓湯 5첩을 쓰는데 氣가 몹시 허한 자는 3첩을 써서 火를 내린 뒤에 이어서 滋陰降火湯, 清離滋坎湯 등을 쓴다. 인하여 黃連茯苓湯

과 六味元 등을 겸하여 쓴 뒤에 이어서 古庵心腎丸을 써서 降火와 補陰을 겸하는 것이 좋다.

陰이 먼저 虛하게 된 자는 먼저 滋陰降火湯을 쓰면서 滋腎丸을 겸용하거나 혹 淸離滋坎湯을 쓴 뒤에 六味, 八味 등을 쓴다.

心火가 극심한 자는 古庵心腎丸 등을 쓸 수 있으나 모두 증상에 맞게 처방을 해야 한다.

十味導赤散도 火를 내리는 좋은 처방이고 秋石丸은 또 火를 사하는 합당한 처방이나 內熱이 심한 자는 陰虛하여 內熱이 생겼을 때 쓰는 처방 3~4첩을 쓰고 뒤에 滋陰降火湯이나 淸離滋坎湯 등을 쓴다. 火氣가 크게 타올라 肺金이 휴손된 자는 麥門冬湯에 人蔘을 熱의 정도를 헤아려 가감하여 나누어 쓴다.

火가 크게 타오르면 人蔘을 소량 쓰고 타오르지 않으면 人蔘을 많이 넣어 쓴다. 혹 黃連茯苓湯을 아침저녁으로 5~6첩을 겸하여 먹는다.

火를 내리는 처방과 滋陰하는 약을 써서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으나 끝내 뚜렷한 효과가 없는 자는 淸心蓮子飲에 人蔘을 허실을 살피 가감하여 쓴다. 寒하면 소량을 쓰고 虛하면 많이 쓴다. 이 약은 心肺의 虛火를 내려주고 肝腎의 淸氣를 올려주니 上實下虛증을 신묘하게 치료한다. 혹 連翹 1돈, 梔子 白朮 澤瀉 각 7푼, 肉桂 3푼을 가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熱이 왕성한 자는 혹 다시 知母 黃柏 각 5푼을 가하고 滋腎丸을 겸해서 복용한다.

혹 火가 많은 사람이 더위를 먹어 병이 든 자는 마땅히 去暑劑로써 치료하고 반드시 運氣를 참고하여 茯苓導赤散⁶⁾의 종류를 쓰는 것이 좋다. 乙戌生人이 甲辛年을 만나 병이 든 사람은 대부분 상초에 風熱이 많다. 만약 熱의 증상이 肺에까지 미쳐서 증상이 나타나는 자는 허실을 살피 茯苓麥門冬湯 등에 형개 방풍의 두 종류를 가하여 쓴다.

상초의 풍열이 너무 왕성한 자는 酒蒸通聖散에 黃連을 8돈 혹은 1냥을 가하고 芒硝와 大黃은 氣가 弱하고 대변이 잘 나오는 자는 빼는 것이 좋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동리는 運氣를 통해 병

리의 큰 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처방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였지 生年과 當年에 근거하여 기계적으로 처방을 쓰지 않았음을 잘 알 수가 있다.

陰虛火動에 대해 “火가 動해서 陰虛하게 된 자가 있고 陰이 虛해서 火가 動한 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병의 원인과 치료법 등을 제시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밀하게 임상을 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6) 六氣相通 皆腑病의 내용 분석

“六氣相通 皆腑病”이란 六氣는 서로 서로 相通하는 짝이 있고 六氣가 일으키는 병은 모두 六腑를 병들게 한다는 뜻인 듯하다.

子午卯酉가 서로 상통하니 子午年에는 卯酉年의 약을 써야 되고 卯酉年에는 子午年의 약을 써야 한다.

辰戌丑未가 서로 상통하니 辰戌年에는 丑未年의 약을 써야 되고 丑未年에는 辰戌年의 약을 써야 한다.

寅申巳亥가 서로 상통해서 寅申年에는 巳亥年의 약을 써야 되고 巳亥年에는 寅申年의 약을 써야 한다.

子午卯酉가 상통한다는 것은 子午年에 少陰君火가 司天을 하면 卯酉陽明燥金이 在泉하고 卯酉陽明燥金이 司天하면 子午少陰君火가 在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辰戌丑未와 寅申巳亥도 위와 同一함으로 생략한다.

이어서 그는 六氣病은 節氣에 따라 변함으로 六步가 바뀔 때마다 처방에서 加減을 해야 하고 태과한 해는 五臟으로 들어가고 六腑에 머무르지 아니함으로 반드시 오운을 살펴보아야만 된다고 하였다. 이는 그가 오운과 육기에 따라 臟과 腑의 병을 나누고 또한 서로 상관성이 있음을 밝힌 내용이다.

7) 運氣詩의 내용 분석

‘病如不是當年氣어든 看與何年運氣同이라 須向某年求治法인덴 方知都在至眞中이라(병이 당년의 運氣와 같지 않거든 어느 해의 運氣와 같은지를 살펴볼

6) 金信根主編. 韓國醫學大系(43冊). 서울. 驢江出版社. 1994. p.364에 근거하여 連翹를 茯苓으로 교정.

것이다. 모름지기 모년을 향해 治法을 구하고자 한다면 처방 구성의 방법이 모두 「지진요대론」 속에 있다」는 詩는 張子和가 지은 『儒門事親』 속에 나오는 詩이다⁷⁾. 위 詩에 대해 張介賓은 “此言이 雖未盡善이나 其亦庶幾乎得運氣之意矣라(이 말이 비록 완전히 옳지는 않지만 그 또한 운기의 뜻을 얻는데 가깝다)”⁸⁾라 평하고 있다. 이어서 『草窓訣』에서는 “天時가 왕성하면 사람의 病을 버리고 天時를 따르며 사람의 病이 왕성하면 天時를 버리고 사람의 病을 따르다”고 하였는데 이도 역시 尹東里가 기계적으로 운기를 쫓지 않고 辨證도 중시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8) 六氣 正方 및 加減의 내용 분석

이곳에 있는 내용은 陳言(無擇)의 『三因方』에 있는 내용이고 『東醫寶鑑』에도 동일한 내용이 인용되어 있지만 『東醫寶鑑』에는 六步에 따른 약물의 加減은 생략되어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의 「天地運氣」조에 모두 16개의 운기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六甲년에 附子山茱萸湯, 六丙년에 黃連茯苓湯

六戊년에 麥門冬湯, 六庚년에 牛膝木瓜湯

六壬년에 苓朮湯, 六乙년에 紫菀湯

六丁년에 菴蓉牛膝湯, 六己년에 白朮厚朴湯

六辛년에 五味子湯, 六癸년에 黃耆茯苓湯의 10개의 처방

그리고 子午之歲에 正陽湯 丑未之歲에 備化湯

寅申之歲에 升明湯, 卯酉之歲에 審平湯

辰戌之歲에 靜順湯, 巳亥之歲에 敷和湯의

6개의 처방이다⁹⁾.

이 모든 처방은 『三因方』에 있는 처방으로 처방 구성은 『三因方』과 같으나 용량은 『三因方』과 다르게 되어 있다¹⁰⁾.

子午年을 例로 들어보면 正方은 正陽湯이고 代方은 十味導赤散이라 하였는데 代方은 『三因方』에는 없는 내용이다.

子午年의 初之氣 때는 객기가 太陽寒水니 杏仁 升麻 각 5돈을 加하고,

二之氣 때는 객기가 厥陰風木이니 茯苓 車前子 각 5돈을 加하고,

三之氣 때는 객기가 少陰君火니 杏仁 麻仁 각 1푼을 加하고,

四之氣 때는 객기가 太陰濕土니 荊芥 茵陳蒿 각 1푼을 加하고,

五之氣 때는 객기가 少陽相火니 本方을 쓰고,

終之氣 때는 객기가 陽明燥金이니 蘇子 5돈을 가한다고 하였는데 『三因方』과 동일하다.

『草窓訣』의 독자적인 내용인 代方에 대해 살펴보면 丑未年의 代方은 不換金正氣散이고, 寅申年의 代方은 龍膽瀉肝湯이고, 卯酉年의 代方은 瀉白散이고, 辰戌年의 代方은 胃苓湯이고, 巳亥年의 代方은 荊防敗毒散이라고 하였다.

9) 六氣論의 내용 분석

서두에 子午少陰君火 同乙年 正陽湯

丑未太陰濕土 同壬己年 備化湯

寅申少陽相火 同丙癸年 升明湯

卯酉陽明燥金 同戊年 審平湯

辰戌太陽寒水 同甲辛年 靜順湯

巳亥厥陰風木 同庚丁年 敷和湯이라고 하였다.

六氣가 司天하는 해와 天干상 병리가 동일한 해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위에서 언급한 6개의 처방은 진무택의 『三因方』에 나오는 처방으로 木火土金水의 평기인 敷和, 升明, 備化, 審平, 靜順으로 처방명을 붙인 것이다. 火는 2개가 있어 少陰君火에는 正陽湯이라 하였고 少陽相火는 火의 平氣인 升明湯이라 하였다.

7)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63.

8) 장개빈저. 이남구현토주석. 현토주석유경.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978.

9) 許浚.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p.334-337.

10)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체로 六氣는 초지기에서 삼지기까지는 司天이 주장하니 예를 들어 子午年의 전반기(대한에서 대서까지) 병은 正陽湯을 쓴다. 사지기부터 종지기까지는 在泉이 주장하니 예를 들어 子午年의 후반기(대서에서 대한까지) 병은 審平湯을 쓰니 나머지는 이에 따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子午年일지라도 卯酉生은 上半年이라도 下半年 약인 審平湯을 쓰고 卯酉年일지라도 子午生은 上半年이라도 下半年 약인 正陽湯을 쓰니 나머지도 이와 같다. 만약 子午年 子午生과 卯酉年 卯酉生은 上半年, 下半年을 막론하고 직접 태어난 地支의 약을 쓰니 子午의 正陽湯, 卯酉의 審平湯을 쓰고 1년이 지나 臟으로 들어가고 腑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땅히 五運으로 치료하는 약을 주는 것도 괜찮다. 上半年 下半年 뿐만 아니라 1년은 六步로 나뉘니 六步中에 약을 쓰는 묘한 방법을 자세히 살펴야 되고 또한 관련된 相通法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내용은 윤통리의 경험에서 우려난 내용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대단히 크다. 특히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장의 내용이 오운은 오장을 병들게 하고 육기는 육부를 병들게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듯 한데 중요한 내용이라 사료된다.

이어서 子午歲부터 巳亥歲까지 여섯 단락으로 나누어 初之氣에서 終之氣까지 用藥하는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子午歲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子午年은 소음군화가 司天하고 양명조금이 在泉한다.

초지기는 객기의 태양한수가 주기의 켈음풍목에 加臨하니 水生木한다. 환자가 巳亥生이면 敷和湯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말라.

이지기는 객기의 켈음풍목이 주기의 소음군화에 加臨하니 木生火한다. 환자가 子午生이면 곧장 당해년의 약인 正陽湯을 쓰고 만약 寅申生이면 升明湯을 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삼지기는 객기의 소음군화가 주기의 소양상화에

加臨하니 火生土하고 또 火克金한다. 환자가 寅申生이면 升明湯을 쓰고 만약 丑未生이면 備化湯을 쓰되 附子 대신 蒼朮을 쓴다.

사지기는 객기의 태음습도가 주기의 태음습도에 加臨하니 土克水하고 또 土生金한다. 환자가 丑未生이면 備化湯을 쓰고 만약 卯酉生이면 審平湯을 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오지기는 객기의 소양상화가 양명조금에 加臨하니 火克金한다. 환자가 寅申生이면 升明湯을 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종지기는 객기의 양명조금이 주기의 태양한수에 加臨하니 金生水한다. 환자가 辰戌生이면 靜順湯을 쓰되 附子 대신 杜沖을 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위에서 나머지도 이와 같다는 뜻은 子午生 正陽湯, 丑未生 備化湯, 寅申生 升明湯, 卯酉生 審平湯, 辰戌生 靜順湯, 巳亥生 敷和湯을 말한다.

위의 내용은 子午年의 六步에 따른 用藥과 또 生年에 따른 用藥을 달리하여 기술한 것으로 역시 윤통리의 경험 속에서 나온 소중한 내용이라 사료된다.

10) 跋文의 내용 분석

먼저 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吁라 醫之術이 其來久矣라 嘗草制藥하야 神農氏 創之하시니 於是而土病木顛과 暨夫邪風惡氣가 觸之而傷이 一變하야 威有於春臺中하야 以終其天壽하니 其爲功於世가 豈不宏乎哉리오 自神農後로 扁鵲華陀者流가 神功奇拔하야 亦不草草於世로대 而即其後 論醫者는 是庸庸者流耳니 何足言哉리오 余友尹君子美는 早志于醫하야 發千載未發之見하고 繼千載未傳之緒하니 其所手著運氣論者는 若車指南이며 如龜坼兆라 其所以蔑如視之於世之紛紛于 而扼腕大談於醫門者 宜也로대 雖然이나 醫是雜技오 君是正士也어늘 何可以正士而業雜技也오 此予所以爲君하야 發一嘔而 屬之라.

歲丙辰 元月 下澣에 淡窩跋하다.

아. 의술의 유래가 오래되었다. 풀을 맛보아 약을 지어 신농씨가 창시하였으니 이에 땅굴 속에서 살아 병들고 나무 위에 살아 병이 든 것과 사풍과 나쁜 기운이 범혹하여 손상된 것이 한번 변화를 하여 모두 건강한 몸으로 봄날 경치를 조망하는 춘대에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가 천수를 다 누리게 되었으니 세상에 공덕을 쌓은 것이 어찌 크다 하지 않으리오. 신농씨 이후로 편작 화타 등이 신이한 공적이 특별히 뛰어나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의술이 거칠지 않았으며 후세에 의학을 논하는 자들은 용렬한 사람들 일 뿐이니 어찌 족히 말할 수 있으리오. 내 친구 윤자미는 일찍 의학에 뜻을 두어 청년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였고 청년동안 전해오지 않던 실마리를 이었으니 그가 손수 지은 운기론은 수례의 나침판이 남쪽을 가리키고 거북이 갈라져 징조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가 세상에서 멸시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것에 팔을 걷어 부치고 의학에서 큰소리를 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비록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학은 잡기이고君은 正士이거늘 어찌 正士로써 잡기를 업으로 삼는가. 이것이 내가 君을 위하여 한번 탄식을 하여 그대를 권면하는 까닭이다.

글을 쓴 해는 1736년 1월 하순에 답하는 발문을 쓰다.

그의 친구 淡窩가 발문을 쓴 해는 尹東리의 나이 32세가 되던 해이다.

『운기연론』의 서문을 쓴 해가 그의 나이 21세였고, 11년이 지난 뒤에 발문이 쓰여졌으니 아마 그 사이의 임상경험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출판을 위해 친구인 淡窩에게 발문을 부탁한 듯하나 책이 출판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淡窩라는 號를 쓴 자를 찾아보면 洪啓禧(1703~1771)라는 사람이 나온다. 그는 전라도 김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주로 만경과 전주에서 보냈다. 1737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서 판서와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유학자로 자처했으나 經世致用に 많은 관심을 보인 개혁주의자였다고 한다.

발문을 쓴 淡窩가 洪啓禧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다. 첫째 淡窩라는 號는 흔하게 쓰는 號는 아니다. 窩는 자기가 머무는 집이나 별장 등의 雅號로 쓰이는데 소강절이 그의 거처를 安樂窩라 한 것은 유명하다. 淡窩는 담박한 마음으로 사는 집이라는 뜻인 듯하다. 둘째 洪계희가 김제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주로 생활했다는 이유이다. 윤동리가 어디에서 개원을 하여 환자를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季父인 農村에게서 의학을 배웠고 農村이 전주에 있는 지명임으로 그도 전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洪계희가 태어난 해가 1703년이고 윤동리는 1705년이니 2살 차이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나이이다. 洪계희는 1737년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서문을 쓴 해는 1736년이니 그가 아직 전주를 떠나기 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結 論

尹東리의 家系와 『草窓誌』에 있는 「運氣衍論」에 대해서 研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尹東리는 坡平尹氏 시조 莘達의 27世孫으로 23세 忠憲公 焄의 高孫이고 父 頤教 季父 雨教가 모두 의사였으며 雨教에게서 의학을 배웠다. 그는 80세를 살았으나 生涯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2. 尹東리는 陳無擇의 『三因方』에 있는 五運과 六氣의 처방을 活用하였고 『東醫寶鑑』에 있는 처방을 바탕으로 運氣처방으로 응용하였다.

3. 윤동리의 운기이론의 중요내용으로 五運合紀가 있는데 甲辛, 戊乙, 丙癸, 庚丁, 壬己가 합하여 一紀가 되며 또 六年三紀相通의 이론이 있는데 乙戊, 丙癸, 庚丁의 三紀의 병리가 相通하고 甲辛, 壬己, 丙癸의 三紀의 병리가 相通한다.

4. 윤동리는 六氣와 五運을 결합하여 子午年の 병리는 乙年과, 卯酉年の 병리는 戊年과, 辰戌年の 병리는 甲辛年과, 丑未年の 병리는 壬己年과, 寅申年の 병리는 丙癸年과 그리고 巳亥年の 병리는 庚丁年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5. 윤동리의 운기임상의 핵심은 甲辛, 戊乙, 丙癸, 庚丁, 壬己 生人이 甲辛, 戊乙, 丙癸, 庚丁, 壬己年을 만났을 때의 모두 25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 내

용으로 각 경우마다 병리기전, 증상, 치법, 처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운기이론에 입각하여 경험한 대방가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6. 윤통리는 六氣年에 따른 『三因方』의 正方과 자신이 정한 代方을 기준으로 初之氣에서 終之氣까지 加味藥을 기술하였으며 더 나아가 六氣年의 初之氣에서 終之氣까지 子午生, 丑未生, 寅申生, 卯酉生, 辰戌生, 巳亥生의 처방을 소개하며 운기임상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7. 「運氣衍論」의 跋文을 쓴 淡窩는 윤통리가 천년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였고 천년동안 전해오지 않던 실마리를 이었다고 그의 의술을 극찬하고 있다.

8. 淡窩는 홍계희(1703~1771)로 추정되는데 그는 淡窩라는 호를 썼고 전주에서 주로 생활하였는데, 윤통리가 의학을 배웠던 季父 雨敎의 호가 農村으로 전주에 있는 지명이며 淡窩가 윤통리를 친구라 했는데 윤통리 보다 2살 위여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마디 더 추가한다면 중국과 한국에서 운기를 임상에 응용한 다양한 실례가 있지만 五運合紀라는 간단한 이론을 정립하여 간단하면서 쉽게 운기를 임상에 활용한 윤통리의 『초창결』은 업적이 탁월하며 의사학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o.20173627).

References

1. Kim SG ed.. An Compendium of Korea Medicine(43). Seoul. Yeogangpublisher. 1994.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43冊). 서울. 驪江出版社. 1994.
2. Seong BH ed.. Yeokjugeunsarokjiphae(3).

Seoul.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2004.

成百曉 譯註. 譯註近思錄集解(3).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4.

3. Yoon CC original work. Park IS ed.. Chochangkyeul. Seoul. Hanseongpublisher. 1980.

윤초창 저. 박인상 편저. 草窓訣. 서울. 漢城出版社. 1980.

4. Chang GB original work. Lee NG ed.. Ryugyeong. Seoul. Beopinmunhwasa. 2006.

장개빈 저. 이남구 현토주석. 유경. 서울. 법인문화사. 2006.

5. Seo GA, Heo JG ed.. Changjahwa Uihakjeonseo.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6. p.163.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63.

6. Chin E. Samingeukilbyeongjeungbangro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3.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7. Papyeongyunssinojongpabo Publication C o m m i s s i o n . Papyeongyunssinojongpabo(sky). Daejeon. Nonggyeongpublisher. 1983.

坡平尹氏魯宗派譜刊行委員會. 坡平尹氏魯宗派譜(天). 大田. 農經出版社. 1983.

8. Heo J. Original Donguibogam. Seoul. Namsandang. 1987.

許浚.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9. Kim JT. A Study on the life of Yoon Cho Chang and Cho-Chang-Kyeul. Daej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3.

金準泰.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에 關한 研究. 대전대학교 대학원. 1993.

10. Yoon SH.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Various Editions and Bibliographic Research on 『Chodangyugoul』. WonKwang University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Korean Medicine. 2014.

윤서현. 『草堂遺訣』의 校勘 및 書誌學的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2014.